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2월)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2월)은 설 명절과 새출발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돕습니다. 2월은 한 해의 속도가 본격적으로 붙는 달이면서도, 겨울의 끝자락에서 마음이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설 연휴(2026년 2월 16-18일) 을 앞두고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졸업과 진로, 일터와 교회의 방향을 다시 세우며, 나라와 세계를 위해 중보할 때입니다. 아래 기도문은 그대로 읽어도 좋고, 교회 이름이나 상황을 한두 문장 덧붙여도 좋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것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는 진실한 마음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2월) 1 설 연휴와 가정의 화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32)

하나님 아버지, 설을 앞두고 분주한 마음 속에서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가정과 친족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말과 표정 속에 깃든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씻어내기 위한 간절한 고백입니다. 주님, 명절의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먼저 제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상대의 반응을 탓하기 전에 제 안의 교만과 서운함, 비교하는 습관을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소서. "그때는 그 말이 필요했어"라는 변명으로 포장했던 날카로운 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가족 안에 쌓인 오해의 벽을 허물어 주옵소서.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세대의 간격 때문에 생긴 거리감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메워 주소서. 한 마디 사과가 어려워 침묵으로 버티던 마음에, 먼저 손 내밀 용기를 부어 주시고, 작은 배려 한 가지를 실천할 힘을 주옵소서. 주님, 명절의 식탁을 축복해 주옵소서. 음식의 풍성함보다 마음의 온기가 넘치게 하시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움츠러든 가족에게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건강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지키시는 손길을 더하여 주소서. 이동의 안전도 지켜 주셔서, 무사히 다녀오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복음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좋은 말은 미루고 잔소리만 앞세우던 저의 습관을 고치시고, 서로를 살리는 말로 집안을 세우게 하옵소서. 혹 오래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번 2월에 화해의 첫 걸음을 떼게 하시며, 사소한 일로 다시 다투지 않도록 사랑의 지혜를 주소서. 주님, 이 명절을 지나며 우리가 "가족이라서 당연하다"는 말로 상처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믿음으로 서로를 품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도 서로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2월) 2 졸업과 진로, 새출발의 믿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주님, 2월의 졸업과 이동의 계절을 맞아 인생의 갈림길에 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하와 기대 속에서도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는 현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이 길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정돈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졸업하는 청년들과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적과 스펙, 비교의 숫자에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성품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소서. 원하는 문이 닫힐 때 낙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닫힌 문 뒤에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취업과 이직, 자격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는 이들의 하루를 붙드소서.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흔들릴 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정체성이 먼저 서게 하옵소서. 필요한 만남과 정보를 열어 주시고, 정직하게 준비하게 하시며,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함께 기다리는 부모와 가족들도 위로해 주옵소서. 자녀의 길이 막혀 보일 때 초조함이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말을 먼저 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분위기가 성적표와 결과로만 오르내리지 않게 하시고,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이 집 안의 공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출발을 앞둔 가정들도 돌봐 주소서. 이사와 전학, 군 입대와 복학, 새로운 부서 배치로 마음이 흩어질 때,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가족이 서로의 일정만 확인하는 동거인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낯선 환경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꿈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잘되면 믿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 믿는다"는 고백으로 2월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실패의 경험마저도 주님 손에 맡길 때 성숙이 되게 하시고, 작은 성실을 통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걸음이 더딜지라도 주님의 인도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새출발의 문턱에서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로 미래를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2월) 3 교회와 예배, 겨울 끝자락의 회복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나이다" (시편 84:2)

하나님, 2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마음이 건조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몸"임을 다시 붙드는 결단입니다.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섬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는 성령의 담대함과 사랑을 주시고, 찬양대와 반주자, 방송과 안내, 주차와 청소로 섬기는 손길에게는 기쁨을 주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땀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공동체 안의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작은 오해가 오래가며 관계를 메마르게 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며 풀게 하시고, 뒷말이 아니라 진실한 대화로 해결하게 하소서. 새가족과 오래된 성도가 함께 숨 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 품어 주는 문화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소서. 겨울 수련회와 교육부 모임 가운데 복음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아이들과 청소년이 교회를 "의무"가 아니라 "생명"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사들과 부모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인내를 주시고,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끊어진 자리에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했던 영혼에게는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겨울이 길어도 봄이 오듯, 주님의 은혜도 반드시 우리 안에 새 계절을 열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2월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한 번의 예배가 한 주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2월) 4 나라와 세계, 평화와 올림픽을 위한 중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27)

주님, 뉴스가 마음을 흔드는 시대에 우리가 두려움에만 머물지 않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2월은 설 연휴와 함께 세계가 스포츠의 큰 무대를 맞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2026년 2월 6-22일) 을 통해 경쟁 너머의 존중과 평화가 드러나게 해 달라고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과 공적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주옵소서. 말이 앞서는 시대에 진실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약한 이들의 울음이 결정 속에 외면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회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교회가 편 가르기의 언어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버티는 가정들을 붙드소서. 물가와 불확실한 일터 때문에 잠을 설칠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하시며, 교회가 실제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돕게 하옵소서. 홀로 사는 어르신, 한부모 가정, 이주민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손길이 닿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 혐오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소서. 올림픽에 모이는 선수들과 스태프,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국기와 메달의 빛보다 사람의 존엄이 먼저 존중받게 하옵소서. 큰 행사 속에서도 탐욕과 과시가 아니라 정정당당함과 섬김이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 격려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도 평화를 선택하게 하소서. 댓글과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쉽게 상처 내는 습관을 끊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부터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학교와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낮아질 때, 주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묻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2월) 5 건강과 마음, 지친 영혼의 치유

"내가 너를 고쳐주리니 네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 (예레미야 30:17)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차가움 속에서 몸과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기와 통증, 오래된 질병,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우울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괜찮다"는 말로 버티기보다, 주님께 솔직히 기대어 다시 숨 쉬기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손 씻기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습관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무리한 일정 속에서도 경계할 것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픈 몸을 만져 주옵소서. 치료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좋은 의료진과 필요한 과정이 열리게 하시고, 병상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인내를 주옵소서. 통증이 반복될 때 낙심이 믿음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하루의 작은 회복이라도 감사로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건져 주소서.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고, 눈물이 나는 날에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깊어질 때 성령께서 위로로 찾아오시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할 용기도 주옵소서. 교회가 아픈 이들을 "강해져라"로 몰아세우지 않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걷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과 일터의 피로를 덜어 주소서. 책임이 많아질수록 쉬는 법을 잊어버리는데, 주님은 우리를 기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쉼을 죄책감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로 중심을 세우며, 잠깐의 휴식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활을 정돈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습관을 세우고 끝까지 지키는 성실을 주시며, 늦은 밤의 불안한 스크롤 대신 말씀 한 구절, 기도 한

문장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속도를 줄여도 은혜는 줄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 새 힘이 솟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새겨 주옵소서. 병이 즉시 떠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걸으며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밤도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